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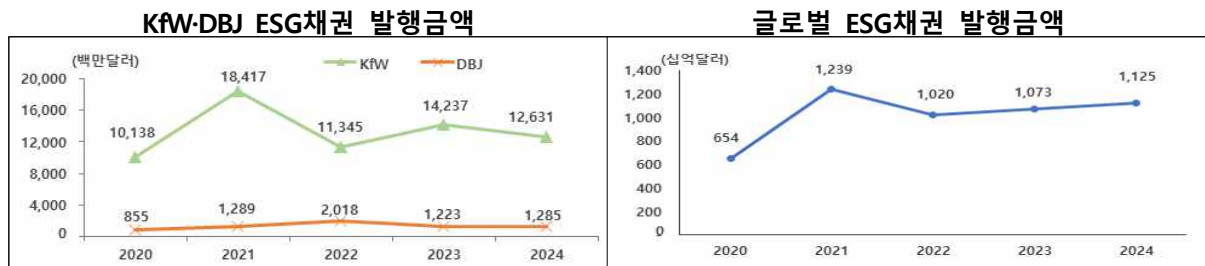
KfW·DBJ의 ESG채권 발행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대훈 (kdb14@kdb.co.kr)

- ◆ KfW·DBJ의 ESG채권 발행은 글로벌 ESG채권 발행 트렌드와 유사하게 '21~'22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다가 회복하는 추세
- ◆ 두 기관은 ESG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을 탈탄소를 위한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 지원중

□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KfW(獨)·DBJ(日)의 ESG채권 발행규모는 '21~'22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

- KfW·DBJ의 ESG채권 발행은 글로벌 ESG채권 발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중
 - KfW·DBJ를 포함한 글로벌 ESG채권 발행은 '21년 정점을 기록한 후 러-우 전쟁에 따른 EU 에너지안보 이슈 및 금리 급등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소폭 감소 후 회복



주 : 환율은 각 연도말 종가기준 적용
자료 : KfW, DBJ 홈페이지

자료 : World Bank(2025), "Labeled Sustainable Bonds"

- KfW의 ESG채권 발행규모는 DBJ 대비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전체 채권발행에서 ESG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DBJ가 KfW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4년말 기준 ESG채권 발행은 KfW 12.6십억 달러, DBJ 1.3십억 달러를 기록
 - 또한, KfW는 녹색채권의 형태로만 발행중인데 반하여, DBJ는 주로 지속가능채권으로 발행하고 '24년부터는 매년 약 64백만달러의 전환채권*도 발행중
- * 완전한 녹색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 해주기 위해 DBJ가 조달하는 전용자금

KfW·DBJ의 ESG채권 발행금액 및 비중

(단위 : 십억달러, %)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KfW	ESG	10.1	(12.5)	18.4	(19.6)	11.3	(11.9)	14.2	(14.3)	12.6	(15.6)
	전체	81.1	(100.0)	93.9	(100.0)	95.7	(100.0)	99.5	(100.0)	80.9	(100.0)
DBJ	ESG	0.9	(24.2)	1.3	(28.9)	2.0	(57.0)	1.2	(38.3)	1.3	(37.8)
	전체	3.5	(100.0)	4.5	(100.0)	3.5	(100.0)	3.2	(100.0)	3.4	(100.0)

주 : 1) 환율은 각 연도말 종가기준 적용, 2) ESG채권은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 전환채권을 포함
자료 : KfW, DBJ 홈페이지

□ ESG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주로 탈탄소를 위한 건물, 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 지원중

- 두 기관 모두 공장이나 빌딩과 같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집행에 가장 큰 비중(KfW 75.5%, DBJ 58.5%*)을 할당중
 - * DBJ는 그린빌딩(환경성능 인증 건축물)이라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자금지원이라 하더라도 해당인증과 관련되면 그린빌딩으로 분류
- 다만, DBJ의 경우 지속가능채권으로 발행함에 따라 사회적채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발전 강화 분야에도 상당한 비중(21.7%)의 자금을 집행중

KfW의 ESG채권 조달자금 사용현황('20~'24년)
(백만달러, %)

구 분	금액	비중
건물	50,577	75.8
풍력	9,692	14.5
태양광	4,760	7.1
청정운송	706	1.1
기 타	1,033	1.5
합 계	66,768	100.0

DBJ의 ESG채권 조달자금 사용현황('20~'24년)
(백만달러, %)

구 분	금액	비중
그린빌딩	2,047	30.7
에너지 효율성	1,839	27.6
사회경제적 발전 강화	1,449	21.7
재생에너지	788	11.8
기 타	547	8.2
합 계	6,670	100.0

주 : 환율은 각 연도말 종가기준 적용
자료 : KfW, DBJ 홈페이지

- 정부의 정책과 기관 자체 프로그램 운용 등 기관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건물 분야에 대한 ESG 조달자금 사용 비중이 크게 집계중
 - KfW는 정부를 대신하여 연방 효율건물 프로그램*을 운영중임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집행규모가 큰 편
 - * 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 DBJ는 그린빌딩 인증이라는 적격 인증제도를 자체 운용함에 따라 관련 지원에 적극적일 뿐만아니라 라벨링을 통한 집계가 용이한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물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요한 상황

- 건물은 전세계 에너지 수요에 30%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로 해당분야에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 가능
 - * IEA(2025), "Energy Efficiency 2025"
- 또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직접 감축
- 우리나라도 ESG채권 발행시 자금사용처를 재생에너지나 폐기물 분야 중심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
 - ESG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녹색 적격자산 Pool이 확대되면 채권발행이 좀 더 수월해져 ESG채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도 기대 가능